が出おめており、コラッケルシーコミッを動き着お客出象者が出りないにおびけ、コラッケットでは、コラッケットでは、コースを見るない。

信賴から

The Korea Daily News.

THE ENGLISH LANGUAGE

Seoul, Korea. Tuesday, Iun. 22nd, 1926.

By Chao Yung-hsiang

This is why, in a country like Australia where the climate is moderate all the year round, English is spoken as it was meant to be, quickly and easily. There is no trilling of the 'r' as in Scotch English, and no slumming of the "w" as in "society" English. In short, Australia, which is more English than England itself in matters of speech, is today the embodiment of all that is best in the English language. Professor Mackail, whose chair is that of English poetry and literature at Oxford University, went to Australia to investigate the pronunciation there. He declared it to be the best pronunciation of all English speaking countries. The writer, who was born and educated in Australia, is often mistaken for a Londoner, and always greeted by other Australians as one from the South with, "I know you are an Australian by the accent."

Hearing the different accents one is remainded of the great necessity of correct pronunciation for Japannese students learning English. If the vowels are practised, the student should find no difficulty in the ex pression of good English.

**央中李秀燁º間島タス入國** 

會長을召る

千圓橫領罪呈告訴

◆교소인으<u>바</u>람회회장 金翊焕判决 惩役八個月

三部

의紛糾

おり一切と委員會の一任空夏期事業の巡回講演隊 景組

郭夏嶽 徐光朝 洪卟¬卟

의정 일보정장비산십 사려다 각승대 (靜岡第三十四聯隊各中隊)의병 의 보조장이 나라 가려도 (靜岡第三十四聯隊各中隊)의병 의 보조장이 보고 하는 모양이네 독월 성 이 실말비 이 십일빌에는 발괴자들이 희 학하여가지고 창립준비의 분장 한고 소등하여 진찰을 하면도바 되는 '자자다'를 생리준비의 분장 의 구례권조리바장을 장구한다 라면 (歌月)일 된 스타이 기에로 등 생리 수 일 하면 이 라는데 방로 다른의 비의로 대원 하면 장전지 밖의 터 첫들이 보이 수 명하여 주기를 바라다 데리 (장전) 가족시장에서 의로 당한다더라(정장면보) 등 총독부에 말하여 그 시요(試用) 의로 한다더라(정장면보) 등 총독부에 말하여 그 시요(試用) 을 총독부에 말하여 그 시요(試用)

사지죽역 다고 다고 다고

(職員)일권 오백명명의 예방주 사를 행하얏섯년테 이십일아춤 에는다시 딸실명명의 새환자를 바이고지금 도착고만면 하늘중 이라는데 방급폭력으로 예방하 조선에 수입하야 그 시유(試用) 이라는데 방급폭력으로 예방하 조선에 수입하야 그 시유(試用) 을 총독부에말하였는바 총독부 에서는 연합이 그 가격이다렴한닷타바 총독부 에서 경제시는 이미덕청동맹(女性同 당하리라더라 당하리라더라 당하리라더라

**晩頭에突現む怪漢。** 

一許某?

다 시내시대문당(西大門町)이당목 대시 시내시대문당(西大門町)이당목 대 실심이 반디 압례서 과희문(光殿 서 의 한당이 반디 압례서 과희문(光殿 서 의 한당이 무려나라 가 오른 한 소사한당이 뛰면나라자 이 오른 안송되었는 바 오는이십 당 한 시에 한당이 무려나라자 이 오른 안송되었는 바 오는이십 당 한 시에 근무하는 순사로들이 자회(李昌輝) 있는이사건을 무료 당 소등당하였다는데 기를 자회 등 지하여 그리되겠이라는데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되는데 기를 사하여 그리되겠이라는데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등 지하여 그리되었이라는데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되었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되었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되었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보면 호한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더라 기를 보면 호한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면 기를 보면 호한다면 기를 보면 하는데 기를 보면 기를 보면 하는데 기를 보면 하는데 기를 보면 하는데 기를 보면 기를

報恩에狗疫

로 또무슨일이나낫나보다 하고 급히 주재소로향하여가는 도중 류종재수육판매명 (劉宗才賦內 기원신에칼을마시다가다 가도 도중 마양삼간이나가다가당한 보는 모양이 현장하여 이 라보를들으는 자자소로향하여 출장하여 보고 보험장에 출장하여 보고 보험장에 출장하여 보기 보험장에 출장하여 보기 보험장에 출장하여 보기 보기 되었다. 이 한 보기 되었다. 이 한

小作爭議後援豆对

三村兒童の盟休

모동조합원의교육을바더

(本) 보고 ( ( ) 보고 ( ) 보

라 부모의감독이 얼벌하여의 기자 볼만이만하게 그와가리 얼하라한것인듯하다더라 (점점) 労便의 病에 剛指注血

只留全人 

부근인사는

湖南學生會

당지에이시는 호남류회에 친목의 전심산의 오후한시부터 동정시에 신보함구 삼당목대 비불교 청단지난 (湖南留學生親睦會)에 커는지난 (湖南留學生親睦會)에 커는지난 (北京社会)를 최양군(根國達)에 커신도학생환명이라면 학사 회하에 열고 박양교 경실례 (사亮根金吉禮)당시의환영사와 (사亮根金吉禮)당시의환영사와 기존회를 열정는데 회원경명과 기존회를 열정는데 회원경명과 기존회를 열정는데 회원경명과 기존회를 열어하였다더라 기존에 하였다더라 静岡縣軍隊の

赤痢患者百餘名

泥醉並現職巡査 跳下サル重傷・

治療五週間以上

파이다 생활나이도 위상을비판하면 의리다 대(송파)

監督의不注意呈 龜城鑛山의惨事

一名阜即死二名阜重傷 역사중구멍이 か是おみ

東明校歡迎會至

早。是

警察。干涉禁止

幼兒一名燒死む

楊州雲水里大火

新市의奉悼

장민들이 사용도의 뜻이로권부칠 상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이 의 인의동이 공임보통하고 운영 (水岭) 이 기행하였으며 기 등 기행하였으며 기 등 이 기 를 이 기 를 시를하였다다라(신시)

安岳窃盗犯

生活難
の殺人

전 보내 지난 시하여 보도 사건이 속을 한 경의 일반주 마인 경에 이 등비 지난 시하여 보도 사건이 속을 이 보는 사건이 속을 이 보는 사건이 수 등이 되는 것이 되는 등이 되는 등이 되는 것이 보고 있는 등이 되는 것이 되는 등이 되는 것이 보고 있는 사용하며 사람이 되는 이 아래와 가는 이 아래와 가는